아이부터 어른까지 해남살이 즐거워요

세대별 생활기반시설 대대적 확충
청소년·청년·가족센터 이용객 급증
군민 삶의 질 향상·지역경제 활성화

해남군이 군민들의 행복한 삶을 지원하기 위해 생활기반시설을 확충해 성과를 내고 있다.

해남군은 민선 7기 이후 세대별 생활기반시설 확충을 추진해 2021년 청소년누림문화센터와 작은영화관을 시작으로 청년두드림센터와 가족어울림센터를 연이어 개관했다.

대도시 못지않은 시설과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갖춘 공간들이 속속 들어서면서 해남군민들의 문화·여가 활동과 복지 기반 확충에 효과를 얻고 있다.

2023년 개관한 가족어울림센터는 연간 8만여명이 이용하는 해남 가족들의 대표 복합문화공간으로 자리잡았다. 공립 해남어린이집, 방과 후 초등돌봄을 위한 다함께돌봄센터, 장난감도서관, 실내놀이터, 주민 소통공간인 동네카페 등이 마련돼 있다.

또 가족센터, 공동육아나눔터, 요리체험 공간인 동네부엌, 교육실 등도 함께 운영되며, 다양한 가족 프로그램과 돌봄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해남 청년두드림센터는 지역 청년 활동의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다. 해남 청년두드림센터 전경.

청소년누림문화센터는 군 단위에서 보기 드문 최신 시설로, 지역 청소년 문화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1층에는 작은영화관 해남시네마가, 2-3층에는 청소년 전용 공간이 자리해 있으며 9세부터 24세까지 누구나 무료로 이용 가능하다. 월평균 2000여명이 방문하며 호응을 얻고 있다.

청년두드림센터는 지역 청년 활동의 구심점으로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다. 청년 정책 아이디어가 샘솟고, 청년들의 자유로운 소통 공간이 되고 있는 청년두드림센터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정책에 반영하는 역할도 담당한다.

직업상담사와 상담을 통해 취업 전략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일자리카페가 운영되고 있으며, 시설내에서는 청년들의 취미, 교양 프로그램도 연중 마련하고 있다. 각종 자격증 관련 특강이나 면접시 정장을 대여하는 등 청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사업들도 다양하게 마련하고 있다.

이 같은 생활기반시설 확충은 군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주고 있다. 가족 단위 이용객 증가로 주변 상권이 살아나며 식당, 편의점, 소매점 등 지역 소상공인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고 있다는 평가다.

해남군 관계자는 "가족사랑을 단단히 묶고 청년·청소년 세대의 성장을 도울 수 있는 공간들이 확대되며 군민 삶의 여유도 높아지고 있다"라며 "가정의 달을 맞아 다채롭고 풍성한 프로그램으로 세심하게 운영하겠다"라고 말했다.

/해남=박희석 기자 dia@kwangju.co.kr

㈜제일타카 김희숙(가운데) 대표가 김희수(왼쪽에서 세번째) 군수에게 고향사랑기부금을 전달한 뒤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진도군 제공〉

제일타카 김희숙 대표 고향사랑기부금 2천만원

진도군에 연간 최고액 기부

진도군은 ㈜제일타카 김희숙 대표가 최근 고향사랑기부제 연간 최고액인 2000만원을 기부했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또 진도군 인재육성장학금 500만원도 함께 기탁했다.

㈜제일타카는 목공, 실내장식 현장에서 못이나 금속 핀을 목재나 금속판에 압축공기로 빠르게 박을 때 사용하는 '에어타카'를 생산하는 업체로 국내 시장 점유율 1위를 차지하고 있다.

김희수 진도군수는 "김희숙 대표의 고향사랑기부 실천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기부금과 장학금은 주민 복리 증진 사업과 지역 인재 양성 등 보배섬 진도의 발전을 위해 소중히 사용하겠다"라고 말했다.

/진도=이종수 기자 js7777@kwangju.co.kr

깡다리 맛 보러 오세요

신안 임자도 23~24일 축제
튀김·조림 음식점 운영 판매

신안군은 전국 최장 12㎞의 대광해변과 홍매화의 섬으로 이름난 임자도 튤립정원에서 오는 23일부터 이틀간 '제6회 섬 깡다리축제'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 지역에서 손꼽히는 수산물 중 하나인 깡다리는 지난해 축제기간 완판을 기록했다. 올해도 직거래 판매장과 깡다리 튀김, 조림 등 별미를 맛볼 수 있는 계절 음식점 운영 등 다양한 볼거리를 준비하고 있다.

임자도 전장포는 예부터 깡다리(강달어, 황석어, 황새기)로 유명한 곳이다. 지난 1970년대에는 파시(어시장)가 형성될 정도였다.

깡다리는 지방 함량이 낮고 단백질이 풍부해 서민의 영양식으로 각광받았으며 현재도 김장용 젓갈, 조림, 튀김 등의 재료로 다양하게 소비된다.

특히 소금에 절여 1년 이상 숙성시키는 깡다리젓은 김치와 찌개의 감칠맛을 내는 필수 재료로 사랑받고 있다.

유억근 축제추진위원장은 "축제 방문객은 신선한 바다 먹거리와 아름다운 임자도의 풍경을 만끽할 수 있는 특별한 시간을 보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신안=이상선 기자 sslee@kwangju.co.kr

지난 7일 목포극동방송 공개홀에서 열린 남북 여담 토크 콘서트에서 참가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전남통일교육센터 '남·북 여담 토크 콘서트'

북한 여성들 삶과 현실 조명

전남통일교육센터(센터장 최미순 세한대 총장)가 최근 목포극동방송 공개홀에서 광복 80주년 기념행사 일원으로 남과 북의 일상 생활 속에서 나타난 문화적 차이에 대한 남북 여담 토크 콘서트를 진행했다.

전남통일교육센터는 통일부 산하 민간기구로 통일 관련 교육과 봉사활동을 통해 남북통일 문화 조성을 선도하고 있는 영암 세한대학교에서 운영하고 있는 기관이다. 광주전남지역 초·중·고생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통일교육과 지역주민 대상 통일 교육, 북한이탈주민과 함께하는 한마당 잔치 등 통일관련 교육과 봉사활동을 하고 있다.

이번 콘서트는 목포극동방송 남현용지사장 사회로 북한이탈주민들이 참석해 북한 생활의 숨겨진 이야기를 조명했다.

특히 북한에서 여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단순히 성별 문제를 넘어, 사회와 문화 속에서 깊이 뿌리내린 일상생활 속의 이야기를 여담을 통해 진솔하게 전달했다.

행사를 주최한 최미순 센터장은 "북한 여성들의 삶과 그들이 겪는 현실에 관한 이야기를 조명하고 남북한 여성의 경험을 비교하며 이해를 높이는 자리였다"라고 전했다.

북한 이탈주민 선교 활동에 힘쓰고 있는 목포주원교회 고종진 목사는 "남북한 주민들이 일상적인 관점에서 통일과 남북 문화적, 역사적 차이를 대화와 소통을 통해 이해하고 좁히는 기회를 제공하고 논의하는 자유로운 토크 시간이 되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지속해서 추진되기를 바란다"라고 말했다. /영암=전봉헌 기자 jbh@kwangju.co.kr

완도 노화·보길권역 '치유의 예술 섬' 조성한다

국토부 공모 선정…130억원 투입

완도군이 국토교통부가 주관하는 '민관 상생투자 협약사업' 공모에 '완도 치유의 예술 섬' 조성사업이 선정됐다.

이 사업은 지난 1980년 완도군 노화읍에 설립된 대우병원을 시작으로 45년째 인연을 이어오고 있는 대우재단과 함께 추진한다. 국·도비, 군비 포함 100억원과 대우재단 30억원 등 총 130억원이 투입된다.

'완도 치유의 예술 섬'은 올해부터 2028년까지 4개년간 노화도와 보길도 등 노화권역에 조성한다.

주요 사업은 ▲수준 높은 '섬 미술관' 조성 ▲노화, 보길 지역 공가·폐가 활용 '예술 가옥' 조성 ▲완도 섬 전체를 예술로 잇는 '섬 예술제' 개최 ▲'미술관 도슨트 양성과 예술 마켓' 운영 ▲'치유의 섬' 관광 콘텐츠와 '예술 섬 프로젝트' 결합 관광 여행 패스 등 관광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테마 관광 활성화' 등이다.

완도군은 기(氣), 소리, 경관, 문학, 역사, 예술 등 각 섬마다 지닌 치유자원을 특화해 완도 전역을 국내에서 유일한 '치유의 섬'으로 조성 중이다.

완도군과 대우재단은 노화읍을 '예술 치유' 지역으로 조성해 일본의 나오시마처럼 세계적인 예술 섬으로 키워나간다는 방침이다.

'섬 미술관'은 광주비엔날레 대표를 역임한 대우재단 부속 아트선재센터의 김선정 감독이 직접 참여해 전시 콘텐츠를 기획·관리한다.

/완도=정은조 기자·전남총괄취재본부장 ejhung@

목포시 '찾아가는 수돗물 수질검사' 서비스

저수조·급수관 등 300개소 대상

목포시가 지역 공동주택 저수조 등 대형 건축물의 급수설비 무료 수질검사 및 수돗물 안심확인제를 통해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 물 환경 조성에 힘쓰고 있다.

'찾아가는 무료 수질검사 서비스'는 수질검사를 희망하는 시설이나 가정을 직접 찾아가 시료를 채취하고 수질검사 후 결과를 알려주는 서비스로, 검사 비용 절감은 물론 직접 의뢰하는 불편함도 덜어줘 매년 시민들의 호응을 얻고 있다.

'급수설비 무료 수질검사'는 '수도법'에 따른 일정 규모 이상의 건축물 저수조 및 옥내급수관 등 공동주택 등 300여 개소를 대상으로 일반세균, 철, 구리 등 6~7개 항목에 대한 수질검사를 지원하는 서비스다.

전화로 언제든지 신청할 수 있다.

'우리집 수돗물 안심확인제'는 수돗물 수질이 궁금한 목포시민 누구나 신청 가능하며, 탁도와 색도 등 8개 항목에 대한 무료 수질검사를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지난해는 80건, 올해 현재까지 20건의 신청을 받아 검사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질기준에 적합했다.

이 서비스를 이용한 한 시민은 "직원이 방문해 자세한 설명을 듣고 수질검사 결과를 직접 확인하니 안심이 되어, 수돗물을 더 편한 마음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반응을 보였다.

/목포=장봉선 기자 jbs@kwangju.co.kr